

교과서 소설의 상호적 읽기

— 소설 읽기의 온라인 처리 전략

한 귀 은*

차 례

- | | |
|----------------------------|--------------------------|
| 1. 문제제기 | : <화랑의 후예>, <삼대> |
| 2. 서사에 대한 서사적 사고 | 2) 갈등의 해소로 인한 서정성의 전경화 |
| 1) 무엇이 보여지고 말해지는가 | - 사건과 시공소의 상호적 표상: <수난 |
| 2) 누가 보는가/말하는가 | 이대>, <동백꽃> |
| 3) 어떻게 제시되는가 | 3) 서정성이 강화된 소설 - 도상적 시공소 |
| 3. 표상 도식의 효용성 검증 | 표상: <메밀꽃 필 무렵> |
| 1) 서사성이 강화된 소설 - 인물의 욕망 표상 | 4. 결론 |

1. 문제제기

소설 읽기에 있어서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개별 소설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소설을 읽을 수 있게 하는 틀(script)이다. 이 틀은 독자가 소설에 대해 구성하는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소설에 대한 심적 표상은 서사적 사고(narrative mode of thought)에 의해 구성된다. 서사적 사고는 소설을 포함하여 설화, 영화, 만화, 뉴스 기사 등 서사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적 요소가 약호화된 모든 텍스트에 적용되는 사고양식이다. 서사적 사고는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행위 등 삶의 문제에 천착한다는 점에서 인과적 논리에 무게중심을 두는 패러다임적 사고와 다르다¹⁾.

소설 표상에 작용하는 서사적 사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무엇이 보여지고 말해지는가 ②누가 보는가, 누가 말하는가 ③어떻게 제시하는가가 그것이다. 독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무엇이 보여지고 말해지는가 하는 것에 관해 표상한다. 이것은 소설을 구성하는 이야기의 측면으로서, 인물·인물의 욕망·행위·갈등·사건·시공소(chronotope) 등과 관련된 표상을 포함한다. 동시에 독자는 말하는 주체인 화자, 보는 주체인 초점화자도 표상하며, 또 이야기가 제시되는 채널도 함께 표상한다. 그러나 이 서사적 사고 혹은 표상은 선조적인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on-line)으로 처리된다²⁾. 즉 ①, ②, ③의 사고 과정이 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처리되어 나가는 것이다.

2. 서사에 대한 서사적 사고

1) 무엇이 보여지고 말해지는가

소설에서 보여지고 말해지는 것은 이야기이다. 이야기에는 인물과 인물의 욕망, 욕망 실현을 위한 행위와 그로 인한 사건, 갈등, 이 모든 것을 둘러싼 시공소가 포함된다.

욕망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등이 매개된 개념이므로 대상 인물에 대한 더

1) Bruner, J. Life as Narrative, Social Research, 54(1). 1987. pp.11-32.

2) 서창원, 이재호, 장운희, 「덩이글의 외현적 정보와 내현적 지식이 추론과정에 미치는 효과: 대명사 참조해결과 스크립트 지식」,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9 (한국심리학회, 1997), pp.139-165.

Sharkey, N. E., & Mitchell, D. C. Word recognition in a functional context: The use of script in read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4, 1985, pp. 253-270.

Sharkey, A. J. C., & Sharkey, N. E. Weak contextual constraints in text and word prim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1, 1992, pp.543-572.

많은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물의 지향의식만을 반영한 동기나 목적이라는 용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생각된다. 행위는 인물 자신의 대화와 구체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행위와 사건의 관계만을 고려하면 행위의 집합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개념은 상대성을 띠고 있으므로 특정 에피소드(episode, event, happening 등)에 대해 그것이 행위인지 사건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본고에서는 개별적 인물의 욕망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행위로,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히는 행위의 집합을 사건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인물의 욕망은 행위로 이어지는데 이 욕망 성취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 이 방해 세력이 인물을 둘러싼 시대나 사회, 다른 인물 등 인물의 외부에 있을 때 외적 갈등이라 하고, 인물의 또 다른 욕망으로 인해 두 욕망이 상충될 때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

이렇듯 인물이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세력과 충돌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소설의 지배소가 될 때 소설에서는 서사성이 강화되지만, 인물의 욕망이 없거나 극미하여 행위나 사건이 소설에서 주변화될 때에는 시공소가 전경화되거나 인물이 아예 시공소로 용해되어 버림으로써 소설은 서정성이 짙어지게 된다. 소설은 일반적으로 서사이지만 모더니즘 소설과 같이 인물이 개별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단자(monad)적 인물이 아닐 때에나 의식의 과잉으로 서사의 요소인 시간과 행위가 거의 제로화될 때에는 인물의 내면이나 시공소가 지배소로 나섬으로써 서정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인물을 둘러싼 시공소는 인물에 대한 비유나 상징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공소는 기호학적 공간으로서 인물과 의미있는 영향 관계를 맺는다. 특히 시공소의 도상성(iconity)으로 인해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비유와 상징의 기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인물이나 사건이 하나의 기호로서 기의를 갖는다고 할 때 그 기의와 시공소가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맺게 되면 시공소는 비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인물이나 사건의 기의보다 훨씬 다양한 의미를 시공소가 내포하게 되면 상징의 기능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누가 보는가/말하는가

화자는 이야기를 말하는 주체이지만, 이야기를 보는 주체는 초점화자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초점화자가 매개된 이야기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매개되지 않은 발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초점화자는 다시 이야기 속 인물인 경우와 이야기 밖에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를 내적 초점화자, 후자를 외적 초점화자라고 한다³⁾.

다음은 내적 초점화자인 ‘주부’의 담론이 매개되어 화자의 발화로 나타나고 있다.

주부의 눈에 비친 덕기는 해끄무레하고 예쁘장스러운 똑똑한 청년이었다. 이 --- (중략) --- 머리 덩수룩한 청년(병화)이 친구들과 와서 일본말로 저희끼리 떠드는 소리를 귓결에 들을 때도 소위 ‘마르크스 보이’로구나 하고 반은 비웃음 섞인 친근한 감정을 느꼈었기 때문에, 지금 보는 덕기도 한 종류려니 하는 생각도 부지중에 나서 ‘마르크스 걸’인 정자가 불시에 연상된 듯도 싶다.⁴⁾

위의 인용된 글에서는 초점화자인 ‘주부’의 ‘덕기’에 대한 담론이 제시되어 있다. ‘주부’는 ‘덕기’를 ‘마르크스 보이’라고 추측한다. 이 추측된 내용을 화자의 목소리를 빌어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외적 초점화자가 매개된 예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어가세.”

“돌어가선 무얼 하나. 출출한데 나가세그려. 수 좋아야 하루에 한 끼 걸리는 눈치밥 먹으러 하숙에 기어 들어 가고도 싶지 않은데…… 군자급만 대게. 내 좋은 데 안내를 해 줄게!”

“지원한 소리 한다. 내 안내할게 자네 좀 내 보게.”

하며, 덕기는 일시 제 방으로 쓰는 아랫방으로 들어갔다.⁵⁾

반면 다음은 초점화자가 매개되지 않은 화자의 담론이다.

3) Genette, J.,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pp.177-178.

4) 염상섭, 《삼대》, 『국어 上』 (교육부, 1999), p.229.

5) 염상섭, 위의 책, p.225.

일 년에 한두 번 방학 때만 오래간만에 만나는 터이나, 이 두 청년은 십자가나 허투리 주고 받는 말끝마다 서로 비꼬는 수작밖에 없건마는, 그 래도 한 번도 정말 노해 본 일은 없는 사이다. 중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첫째, 둘째를 겪고 틀던 수재이고, 비슷비슷한 가정 사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린 우정일망정 어느덧 깊은 이해와 동정은 버려야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었다.⁶⁾

위의 글은 초점화자가 매개되지 않은 화자의 발화만으로 되어 있다. ‘덕기’와 ‘병화’에 대한 화자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소설에서 화자의 발화는 내적 초점화나 외적 초점화와 같이 초점화자가 매개되는 경우도 있고, 초점화자가 매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초점화자의 매개/비매개를 통해 화자의 담론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또한 화자가 이야기 속에 있는 내적 화자(intradiegetic speaker)인 경우와 화자가 이야기 밖에 놓이는 외적 화자(extradiegetic speaker)인 경우 다른 양상으로 표상된다. 즉 내적 화자의 경우, 초점화자나 화자가 모두 이야기 속에 놓이고, 결국 시공소가 인물, 초점 화자, 화자를 감싸는 양상으로 표상되지만, 외적 화자의 경우 화자와 외적 초점화자는 이야기 밖에 놓여 시공소는 인물과 내적 초점화자만 감싸는 형태로 표상된다.

이러한 소설 읽기는 언어 정보의 입력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독자는 언어 정보에 수동적으로 표상을 구성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표상을 형성한다. 독자의 소설텍스트 재약호화는 자신의 텍스트에 대한 틀과 컨텍스트(context)를 활성화시켜 텍스트와 통합하여 심적 표상을 형성하는 절차를 포함한다⁷⁾. 표상 구성은 온라인 처리 과정으로 진행되며, 계열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병행적으로 일어난다. 즉 인물의 담론 구성, 시공소의 비유/상징적 의미 분석, 서사성/서정성 파악, 인물과 시공소의 관계 파악, 초점화자의 담론 구성, 화자의 담론 구성 등이 선조적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처리 과정들이 병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하위처리과정이 완결되기 전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6) 염상섭, 위의 책, p.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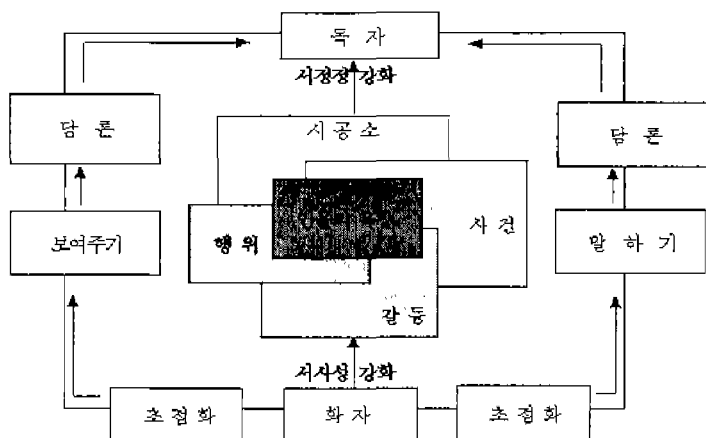
7) Mckoon, G., & Ratcliff, R. Inferences during reading. *Psychological Review*, 99, 1992, pp.440-466.

3) 어떻게 제시되는가

소설에서는 보여주기와 말하기를 통해 이야기가 제시된다.

어떻게 말하는가하는 인물의 욕망, 행위, 갈등과 사건, 시공소 등을 포함한 이야기의 채널 혹은 소통 방식에는 보여주기(showing)와 말하기(telling)가 있다. 보여주기는 인물의 대화와 행위만으로 약호화되는 것이며, 말하기는 화자의 요약적인 담론에 의해 이야기가 분석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보여주기에 의해 독자는 미메시스를 형성하고, 말하기를 통하여 디에게시스를 형성한다. 독자에게 형성된 미메시스와 디에게시스는 다시 독자의 틀을 포함한 컨텍스트와 결합하여 조정된다. 즉 화자의 이야기는 그대로 독자의 소설담론으로 약호화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는 그 자신의 소설 읽기 틀을 발동시키고 동시에 컨텍스트를 수반하여 새로운 소설담론(trans-discourse)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야기의 약호들과 하위약호들인 인물의 욕망, 욕망으로 인한 행위·갈등·사건, 인물과 사건 등을 둘러싼 시공소 등과 이야기를 제시(present)하는 화자와 초점화자, 이야기의 채널인 보여주기와 말하기, 그 채널을 통한 독자의 담론 형성을 반영한 서사적 텍스트 구성 등을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위 도식은, 이야기가 인물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모든 소설에 인물의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물의 욕망이 무화될 때에는 인물의 행위도 욕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 무의미한 행위가 되며, 욕망이 없으므로 갈등이 없으며 사건 또한 인과적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파편적인 것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는 시공소가 지배소로 전경화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소설의 서정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위 도식에서도 가운데 놓인 이야기의 요소들, 즉 욕망, 행위, 갈등, 사건, 시공소에서 아래에 놓인 욕망, 행위, 갈등, 사건 등이 이야기의 지배소가 되면 서사성이, 위에 놓인 시공소가 지배소가 되면 서정성이 강화된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 도식은 소설의 약호나 이야기 방식이 학습자에게 온라인 책략에 의해 표상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3. 표상 도식의 효용성 검증

1) 서사성이 강화된 소설

- 인물의 욕망 표상 : <화랑의 후예>, 《삼대》

인물이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때 방해 세력이 개입하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갈등의 발생과 해소가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 소설은 서사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는 내적 초점화와 외적 초점화가 매개되어 '나'라는 화자가 '황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발화 방식이다. 초점화의 대상은 대부분 '황진사'가 되므로 그의 욕망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방해 받는지 검토하기 위해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숙부는 나에게 관상소에 같이 가자고 하나, 나는 거절한다.
- ② 숙부가 관상소 사람들을 '조선의 심벌'이라 하는 바람에 나는 그곳에 따라간다.
- ③ 나는 그곳이 아편굴 같다고 생각한다.
- ④ 나는 그곳에서 육효를 뿜고 있던 황진사를 만난다.

- ⑤ 황진사는 살아갈 지모가 나지 않아 육효를 뽑는다고 한다.
- ⑥ 숙부가 없는 날, 황진사는 ‘쇠뿔 위에 개뿔 눈 것’을 명약이라 하며 내게 맡기며 밤 한 끼를 얻어 먹는다(황진사의 방문 1).
- ⑦ 그 후, 황진사는 친구와 책상을 들고 와 사라고 하여, 나는 할 수 없이 이 십 전을 주고, 황진사는 책상을 그냥 들고 가 버린다(황진사의 방문 2).
- ⑧ 나는 삼촌을 통해, 그의 문벌이 놀랍고, 그가 가벌에 대한 자부심으로 차 있다는 것, 그가 반조롱조의 진사로 불리우게 된 경위를 듣는다.
- ⑨ 황진사의 “일 오너라.” 하는 소리가 마치 ‘사람 살리우’ 하는 소리처럼 들린다.
- ⑩ 황진사는 나의 집에서 떡을 얻어 먹고, ‘요조숙녀 군자호구’라는 시전의 한 구절을 외고, 주역을 읽는다(황진사의 방문 3).
- ⑪ 황진사의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으며, 취했을 때는 혈육이 없음을 한탄한다.
- ⑫ 숙모가 황진사에게 과부 중매를 서자, 황진사는 분노하고, 이를 숙부가 위로한다.
- ⑬ 새해가 되자 황진사는 숙부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찾아와 매양 음식 대접만 받고 간다(황진사의 방문 4).
- ⑭ 숙부는 대종교 사건으로 투옥된다.
- ⑮ 숙부 면회를 다녀 오던 중 황진사를 만나고, 그는 자신이 ‘화랑의 후예’였음을 자랑한다.
- ⑯ 나는 숙모와 함께 두꺼비 기름을 만병 통치약이라고 속에 파는 약장사 옆에 이인 행세를 하고 있는 황진사를 본다.

위 개요에서 ‘황진사’의 행위와 관련 사건들의 원인에서 ‘황진사’의 욕망을 찾아볼 수 있다. 개요⑥⑦⑨⑬⑯에서는 그의 욕망이 ‘끼니 해결’이라는 것과 그로 인한 그의 행동이, 개요⑧⑩⑮에서는 그의 욕망이 ‘가문 과시와 계승’이라는 것과 그로 인한 행동이, 개요⑩⑪⑫에서는 그의 욕망이 ‘혼인’이라는 것과 그로 인한 행동이 나타나 있다.

‘황진사’의 ‘끼니 해결’과 ‘혼인’이라는 욕망은 그에게 ‘천량’이 없다는 점에서 외적 갈등을 유발한다.

그가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기를 치거나 남에게 구걸하는 것이다. 관상소에서 육효를 뽑고, ‘나’를 숙여 ‘쇠뿔 위에 개뿔 눈 것’을 ‘명약’이라고 하거나, 친구의 ‘책상’을 사라고 가져 왔다가 그냥 들고 가 버리기도 한다. 또 ‘두꺼비 기름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숙여 순사에게 팔려가게 된다. ‘황진사’에게 능력이 있다면 남을 숙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해서 끼니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갈등은 자신의 무능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전근대적인 능력인 육효를 뽑는 것도 실통치 않다. ‘황진사’가 ‘나’의 관상을 본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이미 ‘나’의 ‘삼촌’에게서 들은 정보일 가능성이 짙다. ‘황진사’는 이미 ‘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나’의 얼굴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황진사’가 놓인 곳이 도시의 심장부에 있는 관상소라는 것은 아이러니를 자아낸다.

소란한 차마 소리와 사람의 아우성과 입김과 먼지와 기계의 비명이 주야로 쉬지 않는 도시의 심장 속에 ---- 점신통령의 간판을 내걸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도인>이 있다.

방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술이 물고 때가 걸은 옷을 입고 눈에 찔끔들을 세우고 볼에 살이 빠져 광대뼈들이 볼거진 볼우한 정객, 볼뽕지사들이며, 문학가, 실업가, 저어널리스트, 은행원, 회사원들이 무수히 출입하고, 금광장이, 김꾼들이 방구석에 뒹굴고 있었다.

나는 무슨 아편굴 속에나 들어온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⁸⁾

‘도시의 심장부’와 ‘도인’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부조화의 시공소인 ‘관상소’ 속에 ‘황진사’가 놓여 있다. 이 ‘관상소’는 ‘황진사’라는 인물과 환유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사회에서 능력 없고 돈이 없는 ‘황진사’는 가벌 의식만을 내세우고 있다. 근대 사회에서 가벌 의식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황진사’처럼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남들이 조롱거리로 붙여준 ‘진사’라는 꼬리표를 단 사람은 더욱 그렇다. 결국 그는 근대 사회에 맞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황진사’의 이런 면이 부각되는 이유는 이 소설의 화자가 ‘나’이고 초점화 또한 주로 ‘나’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아래 인용에서 ‘나’의 ‘황진사’에 대한 태도가 나타난다.

나는 처음 관상소에서 그를 보았을 때부터 “하도 지모가 나지 않아 육효를 뽑아 보았노라.” 한 것을 들은 일이 있어서 그가 평소에 얼마나 이 ‘지략’과 ‘조화’를 부려 보고 싶어하는 위인인가를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이 언제나 몸에 지닌 술일 한줌과 네 귀 모지라진 주역 속에서 우려난 음양 오행의 지모 조화가 겨우 ‘쇠뿔 위에 개뿔 눈’ 흉가루 약과, 친구에게 책상을 돌리우

8) 김동리, <화랑의 후예>, 『국어 上』 (교육부, 1999), p.41.

고 다니는 것쯤인가고 생각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⁹⁾

‘나’는 ‘황진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풍자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외적 초점화 측면에서 볼 때 ‘황진사’에 대한 새로운 미메시스를 구성할 수 있다. 즉 ‘숙모’가 ‘황진사’에게 과부를 중매하자 ‘황진사’는 분노를 터뜨리는데, 이 부분에서 ‘황진사’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황진사의 달한 입 가장자리에 미미한 경련이 일어나며, 힘없이 두 두르팍 위에 놓인 그의 두 손은 불불불 떨리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뚝 뚝뚝’ 하고 들리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질부터 좌우로 돌렸다.

“당찮은 딸씀이유……. 흥, 과부, 과부라니 당치 않은 딸씀을…….”

그는 곧 호령이라도 내릴 듯이 누렇게 부은 두 볼이 꿈적꿈적하며 노기 띤 눈을 부라리곤 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황후암 육대 중손이유.”

하고 다시,

“황후암 육대 손이 그래 남의 가문에 출가했던 여자한테 장갈 들다니 당하기나 한 소리요……? 선생도 너무나 과도한 딸씀이유.”¹⁰⁾

과부를 중매한 것에 대해 황진사가 분노하고 있다. 이 분노는, 황진사가 ‘외똥 위에 개똥 눈 약’을 줄 때나, ‘책상’을 팔 때와 같이 억지를 부리던 고슴과 다르다. 평소 보여준 태도가 비굴함과 가버움이러던 이때는 무겁고 진지하다. ‘황진사’는 비록 무능력하고 돈이 없지만 그 자신은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자긍심과 이로 인해 자신이 명문가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상상계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부를 소개받았을 때, 그것도 ‘깨끗한 의복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혼인의 이유로 떠올랐을 때, 황진사의 상상계적 믿음은 위협을 받게 된다. 즉 그의 현실적 정체성이 일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황진사’ 자신의 처지와 무능력함을 동시에 인식시키고 결국 자신에 대한 자괴심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숙부가 진지한 어조로 ‘황후암’, ‘황익당’을 재인식시켰을 때, 다시 상상계적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분노와 자괴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 김동리, 위의 책, pp.48-49.

10) 김동리, 위의 책, pp.5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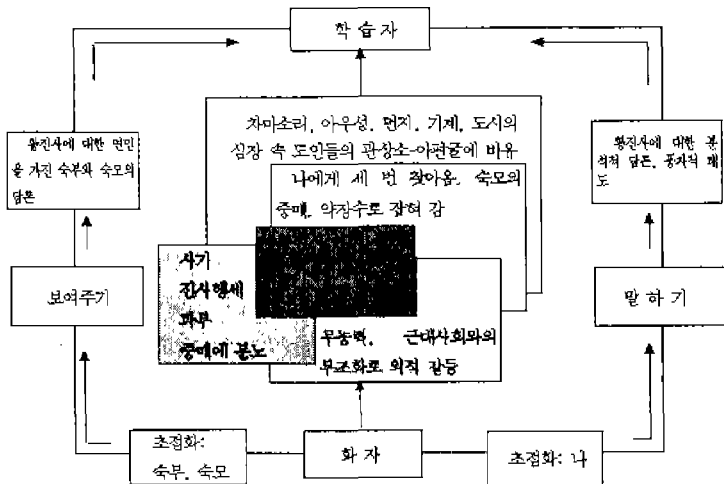
다음 인용에서는 ‘황진사’가 상상계적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의 그의 비애를 알 수 있다.

눈에 고인 물이 눈물이라면 황진사의 두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었다. 그는 가끔 나에게 혈육 없는 것을 한탄하였다. ‘친구’ 집 회갑 잔치 같은 데서 떡국 그릇이나 배불리 얻어 먹고 술기라도 얻근해서 돌아오는 날은, “아, 명가 종손으로 혈육 한 점 없다니, 천도가 무심하지 그라.”¹¹⁾

그의 가문 계승 욕망은 혼인 욕망으로 이어지고 그러나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므로 그 욕망이 실현되지 못한다. 이것으로 그에게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의 표상이 눈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화랑의 후예>는 서사성이 강화된 소설로서 ‘나’라는 내적 초점화자와 외적 초점화가 서술자 ‘나’를 통해 담론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상을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던 <<삼대>>에서도 서사성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외적 초점화와 무초점화를 통해 ‘덕기’의 욕망과 행위가 이야기된다. ‘덕기’의

11) 김동리, 위의 책, p.50.

욕망은 '병화'가 자신에게 고분고분하게 대하는 것이지만 '병화'가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덕기'와 '병화'는 서로 비꼬는 말로 대화한다. '덕기'는 이렇듯 '병화'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우정 때문에 '병화'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데, 이렇듯 상충되는 두 욕망 때문에 '덕기'에게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

“자네 같은 부르주아가 내게까지! 자네가 작별하려 다닐 데는 적어도 조선 은행 총재나…….”

---(중략)--- 언제든지 뱃터 먹고 쓰고 할 것은 다 하면서 게걸대고 입 바른 소리를 툭툭 하는 것이 밍살맞기도 하였다. 있는 사람의 통성으로 자기에게 좀 고분고분하게 굴어주었으면 좋았다.

그러나 없는 사람이 있는 친구와 어울리면 병정 노릇이나 하는 것 같은 일종의 굴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겠고, 또 그렇게 구척척하거나 더럽게 굴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것이 취할 모라고, 아직 경력 없는 덕기전만 돌려 생각도 하는 것이었다.¹²⁾

위의 외적 초점화와 무초점화의 서술을 통해 보듯 '덕기'와 '병화'는 서로 비꼬는 말을 한다. 특히 아래의 무초점화 서술에서는 '덕기'와 '병화'가 서로 이해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술집 '주부'에 의해서 '덕기'가 초점화되었던 것은 앞서 제시하였다. '주부'의 눈에 의해 '덕기'는 마르크스 보이로 탈해지고 있는데 이는 '덕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인 것이다.

또 간호사 출신 '주부'가 운영하는 '선술집'은 두 사람의 성향이나 대화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는 시공소이다. '선술집'은 초라하고 대중적인 취향의 장소이지만, 그곳이 지식인인 간호사 출신의 '주부'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여느 선술집과 다르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병화'는 대중(민중)을 지향하는 지식인이며 이러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삼대>>에서는 인물의 욕망과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시공소는 별로 약호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성이 강화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¹³⁾.

12) 염상섭, <<삼대>>, 위의 책, p.225.

13) 지면 관제상 표상에 대한 도식은 <화랑의 후예>, <동백꽃>, <메밀꽃 필 무렵>

2) 갈등의 해소로 인한 서정성의 전경화

- 사건과 시공소의 상호적 표상: <수난이대>, <동백꽃>

서사성이 강화되어 있지만 갈등이 해소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시공소가 전경화되는 소설은 <수난이대>와 <동백꽃>이다.

‘만도’의 과거지사는 만도를 초점화자로 해서 요약적으로 말해진다.

또, 외적 초점화와 무초점화를 통해 ‘만도’의 현재 욕망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진수’의 무사한 귀경과 ‘진수’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을 가진 ‘만도’는 ‘진수’를 위해 ‘고등어’를 산다. 그러나 그 욕망은 전쟁에서 ‘진수’가 불구가 되어 돌아옴으로써 외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진수’가 불구가 된 것을 발견하고 ‘만도’는 처음에는 분노한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진수’에게 ‘국수’를 사 주면서 갈등이 점차 해소된다.

‘외나무다리’에 이르러서는 ‘진수’에게 협동의 삶을 말한다. 이렇게 하여 외적 갈등이 해소되고 다시 ‘만도’의 욕망 실현을 위한 행위가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게 되는데, 이 암시는 ‘외나무다리’라는 시공소를 통해 나타나 이것이 전경화되고, 또 이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두 사람을 ‘용머리재’가 지켜본다고 함으로써 시공소가 강화된다.

다음은 <수난이대>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다.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전드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까?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중략)---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¹⁴⁾

<동백꽃>에서도 갈등의 해소로 일시적으로 서정성이 강화된다.

‘나’의 욕망은 ‘점순네’가 마름인 땅을 계속 부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점순’이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에 해당하는 것만 제시하기로 한다.

14) 하근찬, <수난이대>, 위의 책, p.351.

열일곱살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불어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 하면 내가 점순이 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배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 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¹⁵⁾

‘나’는 ‘점순’을 ‘적실적실히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점순’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점순’이가 ‘나’의 ‘닭’과 자기의 ‘닭’을 싸움 붙이고, 결국 ‘나’의 ‘닭’이 다치게 되어 ‘점순’이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된다.

‘나’는 ‘점순’이 ‘닭싸움’을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기’를 통해 서술하지만 이야기 내용의 순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 <동백꽃>의 이야기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오늘도 내가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고 있다.
- ② 나흘 전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적이 있다.
- ③ 점순이는 눈물을 흘리고 달아났었다.
- ④ 그 다음날 저녁부터 닭싸움이 시작되었다.
- ⑤ 나는 닭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고추장을 먹었다가 닭을 죽일 뻔하였다.
- ⑥ 그랬던 걸, 오늘 또 닭싸움을 시키는 것이다.
- ⑦ 나는 닭을 떼어 놓고 나무를 하러 갔다.
- ⑧ 나무 하고 오는 길에 다시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 ⑨ 나는 점순이의 닭을 때려 죽였다.
- ⑩ 점순이가 “이답부턴 안 그럴테냐?”라는 물음에 “그래.”라고 대답한다.
- ⑪ 점순이와 나는 동백꽃에 푹 파묻힌다.
- ⑫ 나는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에 정신이 아찔해 진다.
- ⑬ 점순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점순이는 산 아래로, 나는 산 위로 치솟는다.

‘나’는 ‘점순’이가 왜 닭싸움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 원인이 나흘 전 ‘나’가 ‘감자’를 받아 먹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개요 ①에서 ②로 넘어 가는 데서 암시된다. 즉 화자는 닭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를 통해 나타내지만, 그 사건에 대해 외적 초점화로 그려진 것을 보면 ‘나’는 그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에서 ④로 넘어 가는 부분에서도 ‘점순’이 눈물을 흘리고 간 다음 날부터 닭싸움이 시작되었음

15) 김유정, <동백꽃>, 위의 책, p.159.

을 말하고 있다. 요컨대 외적 초점화를 통해서 볼 때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는 원인을 ‘나’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직접 말하기를 통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나’가 감자를 받아 먹지 않은 원인도 ‘점순’에 대한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은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는 것이 실패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질거란다.¹⁶⁾

‘나’는 원래 ‘점순’네가 마름이고 자신은 소작농이기 때문에 굶질거리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점순이가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하니 거기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요컨대 ‘나’의 욕망은 땅과 집을 지키는 것과 ‘점순’에 대해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욕망은 ‘점순’과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점순’이 ‘나’에게 감자를 주는 등의 호의를 보이기 때문에 이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나’ 또한 ‘점순’에게 원래 호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점순’의 욕망은 ‘나’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 주는 것이다. ‘점순’은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감자’를 건넸지만, ‘나’의 거부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다. 그 다음부터 자신의 마음을 알리기 위한 역설적인 방법을 쓴다. 닭싸움을 통해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닭싸움에만 관심을 갖고, 결국 ‘점순’ 닭을 때려 죽인다. 그러나 ‘점순’은 닭이 죽은 데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뵈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펴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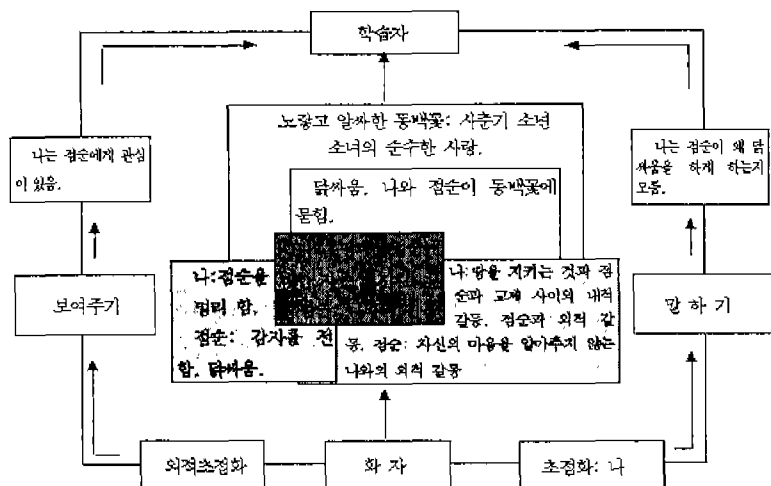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¹⁷⁾

16) 김유정, 위의 책, p.159.

‘나’와 ‘점순’의 갈등의 해소는 ‘동백꽃’ 속이라는 시공소와 ‘동백꽃’의 노랑고 알싸한 이미지에 의해 형상화된다. 즉 ‘동백꽃’은 젊은이들의 풋풋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시공소가 두 사람이 동백꽃에 넘어지는 행위 자체보다 전경화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순수하고 아름답게 상징화시키고 있다. 이를 도식하면 아래와 같다.



3) 서정 소설성이 강화된 소설

- 도상적 시공소 표상: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섭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인물의 욕망에 의한 갈등이 이야기의 지배소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메밀꽃이 핀 길과 돌방앗간 등의 시공소가 인물의 욕망과 사건의 비유나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즈러는 겹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흘리고 있다. 대화가 지는 팔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건너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

17) 김유정, 위의 책, p.164.

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뽕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네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호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출로 들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네밀밭째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재밌에 적적하지는 않았다.¹⁸⁾

이런 시공소 속에서 ‘허생원’의 과거담이 그 자신의 말로써 서술된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행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야. 짐작은 대고 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져 들고 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애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가일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렀다.”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관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 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뒤통몬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관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허나, 처녀의 끝은 쟁귀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 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인 줄 잊을 수 있겠나.”---(중략)---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¹⁹⁾

위 ‘허생원’의 말에서 그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 그의 욕망이라면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 장돌뱅이를 하면서 ‘길’을 걷는 것이다. 과거 ‘성처녀’를 만나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은, ‘같이나 살까’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욕망이라기 보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장돌뱅이를 하면서 ‘성처녀’와 인연이 있었던 ‘봉평’을 빠지지 않고 들르기는 하였어도 적극적으로 ‘성처녀’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처녀’는 이미 추억 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처녀’와 ‘단 한 번의 인연’을 맺을

18)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위의 책, p.358.

19) 이효석, 위의 책, p.359.

수 있었던 이유도 평소 ‘성처녀’를 동경해 와서가 아니라, 그날 밤의 분위기 때문이다. 달빛이 새어 들고 물 소리가 들리는 물방앗간, 울고 있는 처녀의 모습에 취하여 인연이 맺어진 것이다.

‘허생원’의 평생 장돌뱅이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른 세력에 의해 방해 받지 않으므로 갈등이 없다. 이 소설에서 잠깐 ‘충죽집’을 사이에 두고 ‘동이’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나 이 사건은 이 소설의 지배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동이’와 ‘허생원’이 만나기 위한 매개 사건이며, 또한 ‘허생원’과 ‘나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 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잡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이십 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가느라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라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이 흘렀다. 몽당비처럼 짧게 슬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 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닳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닳아버린 짚 사이로는 피가 빼앗이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중략)---

“김침지 당나귀가 가 버리니까 온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 같이 날뛰는 걸. 꼴이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우.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앵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생원은 모르는 곁에 낮이 뜨거워졌다. 못 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리어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생야. 저놈의 짐승이.”²⁰⁾

‘허생원’과 ‘나귀’는 겉모습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유사하다. ‘허생원’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죽집’에 관심을 갖는 것과 늙은 ‘나귀’가 ‘당나귀’에게 암샘을 내는 것은 상동 관계에 놓인다. 인간의 욕망을 동물의 욕망에 치환시켜서 병렬적으로 이야기가 엮인 것에서 이 소설이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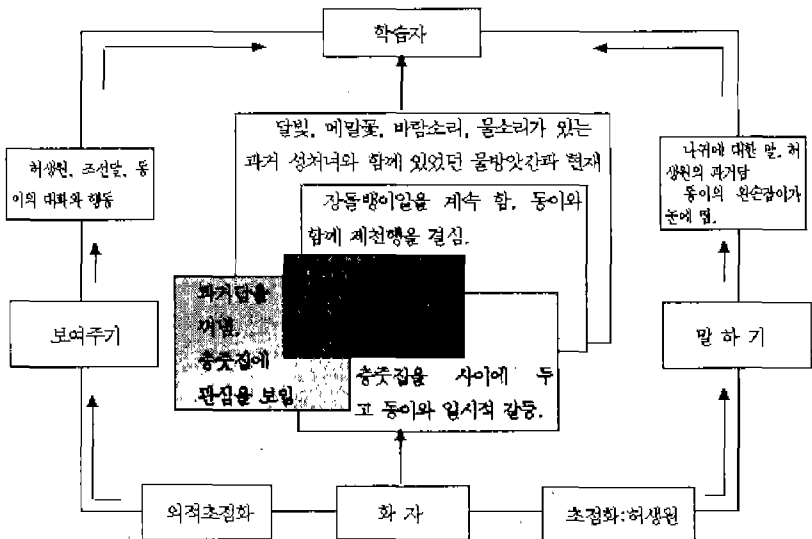
요컨대 ‘허생원’의 욕망은 평생 장돌뱅이를 하며 ‘길’을 걷고자 하는 욕망과 인간 본연의 성적 욕망으로 대표된다. 두 욕망 모두 어떤 특정한 목표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방해 세력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허생원’이 돈이 없

20) 이효석, 위의 책, pp.356-357.

고 열금뱅이로서 스스로의 열등감 때문에 그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으나 그것으로 ‘허생원’이 좌절감을 느껴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과거담에 젖어 그 향수를 즐기며 산다는 점에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허생원’에게 있어서 달빛에 젖은 길은 바로 과거를 회상시키는 매개이며 현재의 ‘허생원’은 이러한 시공소 속에서 바로 과거의 ‘허생원’이 되어 다시 한 번 그 ‘괴이한 인연’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이야기와 과거담의 교차는 이 소설의 열린 구성과도 관계가 있다. 소설의 마지막에는 ‘동이’가 왼손잡이라는 것이 ‘허생원’의 눈에 띈다. 여기서 초점화자는 ‘허생원’이므로, 왼손잡이가 유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이’가 왼손잡이라는 것이 중요한 정보로 떠오르는 것은 화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점화자 ‘허생원’의 관점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이렇듯 이 소설은 ‘동이’가 ‘허생원’의 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 없이 열린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

이러한 표상을 도식하면 아래와 같다.



4. 결론

소설 읽기는 온라인 처리 책략에 의해 수행된다. 즉 독자는 인물의 욕망·행위·갈등·사건·시공소 등 이야기의 약호들과, 이야기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는 주체인 화자와 초점화자, 또 이야기의 소통 방식으로서의 보여주기와 말하기를 통한 소설의 미메시스와 디에제시스를 선조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구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독자 자신의 해독틀을 수반한 컨텍스트가 작용해 소설담론으로서의 심적 표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심적 표상을 정교화하여 도식화한 것을 2.에 제시하였다.

이 도식을 근거로 고등학교 국어(상)에 나오는 소설은, 인물과 갈등, 사건 등의 전경화로 서사성이 강화된 소설과, 갈등의 해소로 서정성이 일시적으로 강화된 소설, 시공소의 전경화로 서정성이 강화된 소설로 분류될 수 있었다.

앞으로 학습자의 심적 표상을 고려한 소설 해독틀이 더욱 정교화된다면 소설 교육이 더 활성화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서창원, 이재호, 장윤희, 「덩이글의 외현적 정보와 내현적 지식이 추론과정에 미치는 효과: 대명사 참조해결과 스크립트 지식」,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한국심리학회, 1997. 9.)
- 이정모, 이재호, 「글 이해의 심리적 과정」,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언어와 인지』 (학지사, 1997.)
- Gen  tte, J.,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 Lee, J. Deeper processing: Spreading elaboration and integrative elabora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Queen's University. 1979.
- Mckoon, G., & Ratcliff, R. Inferences during reading. Psychological Review, 99. 1992.

- Sharkey, A. J. C., & Sharkey, N. E. Weak contextual constraints in text and word prim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1. 1992.
- Sharkey, N. E., & Mitchell, D. C. Word recognition in a functional context: The use of script in read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4. 1985.

Abstract

How to Inter-read Novels in the Highschool Textbook(국어上)

- On-line Generation of Elaborative Inference on Reading the Narrative texts

Han Gwi-Eu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n-line effect of predictive inferences in narrative text comprehension. It is not the liner mode but the on-line generatione that we reading a narrative text. On reading the text, we are accompany by our context and reading script at a time.

In section2, presenting the polyphonic subjects and communication in the text, it was found that the readers would interpret the text through the script or diagram to represent dynamically the text. There are a narrator and many other focalizers in a narrative text.

In section3, through the diagram resulted from section2, it was proved that the diagram would let the students read the texts.

It is classified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the text to be dominated narrativity by foregrounding characters(agents), plot, and conflicts. The second is the text to be controlled by lyricism temporarily through solving the conflicts. The other is the text to be dominated lyricism by foregrounding the iconic chronotope.

On the basis of this result, if the diagram should be more elaborate, we would be able to make the students read and interpret a narrative text on their own.